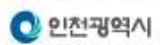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5월 23일(일) 총 8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 정책과	담당자	• 기후대응팀장 이 태 호 ☎440-8591 • 담당자 최 혜 민 ☎440-859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2: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탄소중립 공동선언

- 2021 P4G 정상회의 사전행사로 국내 243개 지자체 모두 동참 -
- 인천, 12월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예정 -

인천시를 포함한 국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오는 24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건 세계 최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둔 24일~29일 녹색미래주간에 진행되는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행사'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모으고자 녹색미래주간 첫날에 이 같은 특별세션을 마련했으며, 오후 8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공동선언에 국내 모든 지자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 (실천연대)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구체적 실천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연대('20.7 발족)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으로 포문을 연 이 날 행사에는 한정에 환경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의장,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참가 예정이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기조강연,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인천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가입('20.11.), 시·8개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20.12.) 등을 추진하여 탈석탄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행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6천6백만톤CO₂-eq)* 대비 30.1%, 80.1%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개 배출량

이와 함께 시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흥화력발전 조기감축 추진, 대체 신재생 에너지 구축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짜고 있다.

이번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10개월간 추진 예정이며, 7분야별(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로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포럼을 운영하며, 분과별로 6회에 걸쳐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를 통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분야 정보 공유를 할 예정이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COP28 인천광역시 유치추진단’을 5월 27일에 발족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8년 배출량 대비 30.1%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 영흥화력 조기폐쇄 유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 행사계획.
2.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
3. 포스터 및 카드뉴스. 끝.

□ 행사 개요

- (목적) 우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결집,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행동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 제고
- (일시/장소) '21.5.24(월) 20:00~22:00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숲(하이브리드)
- (주제) Local Action, Global Change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참석자)
 - (국내)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환경부·행안부장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 국내 지자체의 장 및 탄소중립 담당, 정의선 대한상공회의소장
 - (국외) 독일 본 시장,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콜롬비아 메델린 시장, 인도 코치 시장, 스웨덴 말뫼 부시장, GCF 국장, ICLEI 세계 사무총장
- (구성) 기조강연 → 선언식 퍼포먼스 → 온·오프라인 협연 → 주제 발표·토론

□ 세부 일정(안)

소요시간		내용	
개회사·축사 및 기조강연			
10분	1분	오프닝	- P4G 세션 오프닝 영상
	3분	개회사	- 한정애 환경부 장관
	6분	축사	-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 축사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
10분	o 기조강연 - Kate Raworth 경제학자(실시간 영상)		
퍼포먼스 및 협연			
5분	o 탄소중립 선언식 퍼포먼스 - 전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선언으로 환경위기사계를 되돌림		
6분	o 온·오프라인 오케스트라 협연 -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지역을 배경, 지역의 탄소중립 필요성 인식		

소요시간	내용										
발표·패널 토론1											
35분	<p>-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모더레이터 :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p> <table border="1"> <tr> <td rowspan="4">발표</td><td>Katja Dörner, 독일 Bonn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탄소중립에서의 지역의 역할</td></tr> <tr> <td>Gino Van Begin, ICLEI 세계 사무총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의 역할</td></tr> <tr> <td>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전 녹화영상) *대한상공회의소장 (주제)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산업계의 역할</td></tr> <tr> <td>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주제) (탈석탄금고 등)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td></tr> <tr> <td rowspan="3">토론</td><td>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실천연대 광역지자체측 대표</td></tr> <tr> <td>황명선 논산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td></tr> <tr> <td>박승원 광명시장(실시간 영상)</td></tr> </table>	발표	Katja Dörner, 독일 Bonn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탄소중립에서의 지역의 역할	Gino Van Begin, ICLEI 세계 사무총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의 역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전 녹화영상) *대한상공회의소장 (주제)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산업계의 역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주제) (탈석탄금고 등)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실천연대 광역지자체측 대표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박승원 광명시장(실시간 영상)	
발표	Katja Dörner, 독일 Bonn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탄소중립에서의 지역의 역할										
	Gino Van Begin, ICLEI 세계 사무총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의 역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전 녹화영상) *대한상공회의소장 (주제)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산업계의 역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주제) (탈석탄금고 등)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실천연대 광역지자체측 대표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박승원 광명시장(실시간 영상)										
5분	o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사례(세션 브릿지 영상) 송출										
발표·패널 토론2											
45분	<p>-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 계획수립 및 부문별 방안 마련 (모더레이터 :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발표</td><td>Jacob Bundsgaard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덴마크 오르후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과정</td></tr> <tr> <td>Simon Chrisander, 스웨덴 말뫼 부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스웨덴 말뫼의 사례 : 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과의 협력</td></tr> <tr> <td>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제) 제주도의 탄소중립 계획수립 과정(에너지 부문)</td></tr> <tr> <td>Daniel Quintero, 콜롬비아 Medellin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콜롬비아 메데인의 사례 : 건물·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td></tr> <tr> <td>M. Anil Kumar 인도 Kochi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 인도 고치의 사례 : 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td></tr> <tr> <td rowspan="3">토론</td><td>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td></tr> <tr> <td>Tony Clamp GCF 국장(민간 섹터) (실시간 영상) - 지방정부의 민간섹터와의 협력 방안(개발도상국 등) - GCF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원시 국가들의 더 적합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안 - 지방정부에 있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협력, 민간섹터 투자 등)</td></tr> <tr> <td>김홍장 당진시장(실시간 영상)</td></tr> </table>	발표	Jacob Bundsgaard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덴마크 오르후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과정	Simon Chrisander, 스웨덴 말뫼 부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스웨덴 말뫼의 사례 : 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과의 협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제) 제주도의 탄소중립 계획수립 과정(에너지 부문)	Daniel Quintero, 콜롬비아 Medellin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콜롬비아 메데인의 사례 : 건물·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	M. Anil Kumar 인도 Kochi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 인도 고치의 사례 : 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	토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Tony Clamp GCF 국장(민간 섹터) (실시간 영상) - 지방정부의 민간섹터와의 협력 방안(개발도상국 등) - GCF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원시 국가들의 더 적합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안 - 지방정부에 있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협력, 민간섹터 투자 등)	김홍장 당진시장(실시간 영상)
발표	Jacob Bundsgaard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덴마크 오르후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과정										
	Simon Chrisander, 스웨덴 말뫼 부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스웨덴 말뫼의 사례 : 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과의 협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제) 제주도의 탄소중립 계획수립 과정(에너지 부문)										
	Daniel Quintero, 콜롬비아 Medellin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콜롬비아 메데인의 사례 : 건물·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										
	M. Anil Kumar 인도 Kochi 시장 (사전 녹화영상) (주제) - 인도 고치의 사례 : 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변화와 도전)										
토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Tony Clamp GCF 국장(민간 섹터) (실시간 영상) - 지방정부의 민간섹터와의 협력 방안(개발도상국 등) - GCF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원시 국가들의 더 적합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안 - 지방정부에 있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협력, 민간섹터 투자 등)										
	김홍장 당진시장(실시간 영상)										
4분	o 폐회식										

「대한민국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로 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의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선언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적 사명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동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확산한다.

2021년 5월 24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동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선도합니다.



문의

사무국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032-590-3467
광역대표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252
기초대표 수원시 기후대기과 031-228-2863



녹색미래주간
5.24.~5.29.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주인공!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지자체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에 앞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5.24)합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 지자체가 모여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1년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CO₂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1.5°C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려면
2050년까지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자체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탄소중립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바꾸는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찾고
이런 실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 지금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은 올해 지구의 날(4.22)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05년 대비 50~52%), 주요 탄소배출국 40개국의
기후 약속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이전부터 EU, 중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

2020년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
2020년 7월	지자체의 뜻을 모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2021년 5월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선도하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 누구나 생활하며 쓰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
-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일자리는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전환
- 건물과 도시는 높은 에너지효율과 동시에 에너지를 자체 생산
- 농·어촌과 생태공간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그린에너지 공간으로 변화
-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순환의 시대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

Local Action! Global Change!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지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한국환경공단